### [인터뷰] 42서울에서의 삶은 ‘어른스럽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inyang(이하 in) “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과 무역학을 전공했어요. 예술문화 계통을 좋아해요. 취업 센터에서 상담했을 때, 뮤지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돈 못 벌 각오를 하라더라고요. 그때 취미와 일을 구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싫증 났는데, ‘그럼 컴퓨터랑 대화하는 건 어떨까’하는 단순한 생각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soooh(이하 soo) “42서울에 오기 이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들어온 의뢰를 바탕으로 건축 도면을 만들어서 시공하는 것만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도면을 그리기 이전에 영업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영업은 적성에 안 맞았어요. 선배들은 한 두 달 지나 고객이 생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한 달을 못 참고 나왔어요. 이런저런 고민과 시도를 하다가 중학생 때 html을 재미있게 만졌던 게 생각이 나 코딩의 길로 들어섰어요.”

<사진>

soo “이전에 했던 일에 비유하자면 42서울에서의 시간은 기반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단단하게 기초를 닦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다른 언어를 익히고 해커톤과 같은 경험을 쌓으며, 벽을 만들어서 예쁜 집을 지어야죠.”

in “42서울의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긴장감을 줘요. ‘오든 말든 알아서 하고, 책임도 네가 져' 이런 식이죠. ‘어른의 삶은 이런 거구나’ 싶어요. 차라리 학교에 다니는 게 편했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하하). 학교는 일단 등교하면 가서 자더라도 ‘오늘 하루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이럴 땐 ‘내가 고등학교 체질이었구나’ 싶죠.”

soo “비슷한 생각이에요. 자유를 갈망해오긴 했는데, 막상 동아리 활동은 물론 시험 스케줄까지 모든 걸 직접 관리해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산다고?’ 싶어요. ‘성인이다'와 ‘어른스럽다'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성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른은 열심히 살고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요. 42서울에서의 삶은 ‘어른스럽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in “요즘은 ‘개발이 내 적성에 맞나’ 고민하는 시기예요. 코딩할 땐 줄곧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요. 본 전공인 문화예술 분야로 돌아갈까도 싶어요. 다른 한편으론 처음이라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언어도 배우기 시작할 때 단어, 문법 익힐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따지고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니까 막 시작한 지금 이 시기가 어려운 거겠죠.”

soo “과제를 해낼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 이전에 평가받는 건 무서워요. 정직하게 과제를 했지만 치팅으로 보일까 봐요. 이전에는 디펜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미 시작한 평가를 중단한 적도 있어요. 평가자에겐 더 공부하고 자신만만하게 평가받고 싶다고 했죠. 지금은 제가 짠 코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 어느 부분이든 바로 설명할 수 있게요. 완벽하게 준비하면 자신감이 넘쳐서 ‘이런 부분은 왜 안 물어보세요'라고 되묻기도 해요.”

in “코딩을 하다보면 한편으론 코딩이 영어처럼 필수가 될까봐 걱정돼요. 제가 졸업한 대학도 최근에 기초 교양으로 코딩과목이 생겼더라고요.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그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사람을 위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어플의 설정 버튼 하나를 제대로 찾기 어려워해요. 우리 세대는 설정이라 쓰여있지 않아도 톱니바퀴모양을 보면 ‘설정 버튼'인 것을 알잖아요. 이런저런 버튼을 누르다 보면 각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깨닫고요. 그런데 엄마는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엔 어플 알림 꺼드리다가 새벽에 울컥했네요.”

### [녹취]

5개월

진짜 생각하지 못한 방식

2:20

(인)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있는데, 내적으로도 쪼이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겉으로도 빡센 학교를 다니는 게 편했다(하하). 내가 고등학교 체질이었구나.

(수) 나는 자유를 갈망했는데, 동아리활동 시험 스케줄 다 내가 관리해야 하니까, 법규화된 체질?이라고 해야하나 학교체질.

(인) 학교는 일단 등교하면 가서 자더라도 '오늘 하루 할일 헀다 지각도 안했다'했는데 여기선 오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니가져, 이러니까 어른의 삶은 이런거구나...

(수) 요즘 유행하는 짤 중에 어른스럽다랑 성인이다를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성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른은 책임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할 것 같고 갑자기 이런다고? 2-2차가 미뤄지니까 한달정도. 마지막 러쉬랑 비에스큐를 못해서 못하고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과정 하나를 건너뛰고 시험을 보고와서.

(마지막 과제가 뭐였는지, 버스타려고 했다, 스터디원들끼리 치킨먹은 이야기)

7:00

(수) 2기 2차는 피신 시작하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구성하는 분이 있었다.격일로 a.b팀 나눠서. 퐁당퐁당 스터디라고.

(인) 저는 팀장님이랑 친해져서 거기 참여하게 됐다. 오픈카톡방에 선착순으로 끊어서 구성원들을 모았는데 몇시간만에 다 찼다.

(수) 저는 퐁당퐁당 놓쳐서 주변에 물색 잘하거든요. 친해지고 싶은 언니 있어서 알랑바욱 낀 다음에 . 그리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오아시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스캔하면서 맘에 드는 친구들 5명 모아. 한분은 피씬까지만 하고 또 다른 한분은 취업해 블랙홀에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다섯이서 잘 지내요.

9:00 이전에 뭐했는지

(수) 저는 건축 디자인.

(인) 저는 어문이랑 무역 콘텐츠.

(수)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인) 진로용 진로용. 사학년 때 진로고민 하다가... (하하하) 진로 취업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수) 이쪽 길이 돈 잘번다고 해서

(인) 저는 대외활동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때 인간관계에서 환멸이 나서 사람말고 컴퓨터를 해보자. 여기도 결국은 인간관계더라고요. 어딜가도 그렇지 않을까.

(수) 나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왔는데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한대서. 저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하고싶은 공부만 하고 살아야하는.

(인) 저는 맥락이 달라요 아빠가 재벌집 셋째쯤으로 태어냐아했다고 하는데, 모든걸 다 하기 싫어해서.

(수) 저는 어느날 엄마랑 이케아를 갔는데, 엄마가 너는 엄마랑 노는 걸로 돈벌 수 있으면 넌 이게 제일 적성에 맞겠다고

(인) 저는 예술쪽 문화계통 좋아해요 예전부터 이쪽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취업센터에 상담가씅ㄹ 때 뮤지컬쪽 하고 싶다과 했더니, 돈 못벌각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와 일을 별개로 나눠야 겠다고

(수) 저는 건축 관련해서 취업하고 일도 하다가, 들어온 건축 도면을 만들어서 시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면을 그리기까지 영업이 너무 싫었던 거에요. 저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하면 인테리어 엉ㅂ체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거에요. 그래야 기업의 제품을 납품해 시공을 하는건데. 그럼 영업이 맨날 인테리어업체 지물포 돌아다니면서 괜찮으면 견적 저희한테 달라고 해야했던 게 화가 났던 거에요. 선배들은 한달 두달 지나면 고객 생길 거라고 했는데, 한달을 못참고 나왔어요. 한번 후회한적이 있는데 퇴사하고 상담받았던 사람이 맡기고 싶다고 전화를 해왔을 때. 그 이후로는 후회 절대 안했어요. 일단 저는 영업은 스타일에 정말 안맞아요. 거기 퇴사하고 서비스 직 정직원으로도 일했는데, 거기도 인간관계에서... 지점 안에서 정치질 당해서 방황하다가. 손으로 그리는 일러스트를 좋아해서 웹디하다가 중학교때인가 어쩌다보니 html로 만들었던 게 떠올라서 웹디다. 난 여기다. 하다가 일단 웹디할거면 다 박봉이래요 . 컴퓨터를 다루는데 돈은 디자이너만큼 버는 거예요. 이럴거면 코딩해서 풀스택으로 일하면 돈 더 잘벌곘네? 원래 국비 다니려 했거든요. 타임라인이 있어요. 처음으로 42서울 한달짜리 한다고 했을 때 기사보고 테스트 보고 까먹고 있다가, 국비학원 다녀야겠다고 다 알아보고 2주 뒤면 들어가면 되는데 저한테 추가합격됐다고. 국비 미루고 여기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 짤렸어요.

16:00 (후회하진 않나요. 국비랑 배우는 게 다른데.)

(수) 국비갔으면 버텼을까 싶고, 취업이 괜찮은 데로 했을까 싶더라고요. 여기는 건축으로 따지면 기반만 잡고 기동만 세우면, 나중에 제가 추가로 공부할 언어나 해커톤으로 벽을 세워서. 예쁜 집 지어서 취업해야죠. (원래했던일) 인테리어 디자이너. 대학교 다닐 때 공학과 친구들이 c언어로 투덜거리는 걸 제가 하고 있을 줄이야.

18:00 (이노콘 얘기 )

(인) 다 하는데 얕게 한 것 같아요.영상 기획 촬영 편집, 행사 진행 다 하는데 얕게. 메인은 다 다른 분들이 하시고. 촬영 편집은 외주 업체에서 하고.

(수) 자체 콘텐츠, 번역

(인) 중간에서 못알아듣는데 다 아는척. 프랑스어전공이라.

(수) 그래서 인쥬르라고 불러요.

(인) 프랑스어 전공이라고 말하면 잘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체육했어요? 예술했어요?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키크고 덩치가 있고 그래서 온갖 예체능을 다 들어본 것 같아요. 키가 168이예요. 그치만 무조건 제가 평균이예요(하하).

(수) 이노콘 갔을 때 목소리 내는 게 서슴 없는 거예요. 제가 대외활동은 처음이라. 할말도 안하고

(인) 그런데 이 친구가 다했어요. 의견 내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수) 성격은 내가 건드렸으면 다 해야해요. 기획을 내가 했으면 촬영 편집해야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건드리는데. 그래서 학부때도 피피티 내가 다 만들었나봐.

(인) 저는 그럼 거기서 잘한다 네가 피피티 예쁘다 말하는 역할.

(올리비아 치어리딩/ 일 잘안되던 이야기 / 피드백 굿 / 올해가 더 잘되지 않을까/ 영상 아쉬워)

(인) 코딩이 내 적성에 맞나? 이노콘은 본전공 기획쪽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했던 일이기도 하다. 코딩은 주변사람에게 도움만 받던 일이라. 근데 막상 갔더니 올리비아님이 선봉장 하시고, 저는 치어리딩.. 요즘은 문화예술 일자리 취업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양님 성격에 대한 이야기)

29:00

(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속도가 제일 느린 편이다. 남이랑 비교하다보니 안맞나 싶고, 땅굴 파고 들어갈 때도 있다. 그래도 과제를 해낼 때면 기분이 좋으니까 엄청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인) 지금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언어도 단어, 문법 배울 때 어렵잖아요. 처음에 프랑스어 배울 때 동사도 변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언어잖아요. 문법 새로 공부하고 용어도 막 외워야 하고 그 시기라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수) 저는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고 생각해요. 지금초등학교 가도 40전에 대학간다.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취여ㅓㅂ해야 하나 압박감. 지금 하고 있는 걸 너무 헤이하게 하고 있나? 취업을 위한 언어를 배워야 하나

(인)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확신은 없죠.

(수) 취업을 위한 과정보단 학문을 위한 과정이라서. 심지어 현장에서 쓰는 언어도 아니고.

(인) 쓴다고 해도 공장 기게 관리... 피신 때 스터디원 중 한분이 현직자였는데 경험삼아 들어오신 분이었어ㅇ. 그분이 피씬 하시면서, 취업을 하고 싶음녀 이걸 때려치고 하고 싶은 언어를 해봐라. 여러개 해보고 안맞으면 너는 이길이 안맞는거다. 그 언어중에 씨는 없었다. 본인은 공장 관리직하니까 씨를 쓰는데, 요즘 웹개발하는데 씨를 누가 쓰냐. 취업생각하면 이거하는 것보다 학원다니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멘토님들도 여기가 취업양성소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취업까지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깍하고 온게 있으니까.

(수) 홍보할 때 취업이 있었으니까.

(인) 보장된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 그래서 Html 공부할 사람 모집할까하고

(3,6,9/ 재벌 3세가 꿈인데 아빠가 노력 안했네)

(인) 그래도 42에 만족하는 편이에요. 환경이. 아는 만큼 요구할 수 있다. (하략)

(수) 동아리 많아서 좋다. 영상에 관심 있었는데. 코덱. 활동 잘안하는 건 블랙홀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37:00

(인) 80일 서버끝내고 큡3 진행중

39:00

(수) 제출할 때 치팅으로 보일까봐 무서워요. 제가 치팅을 안했더라도.

(인) 변수명을 짤 때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알잖아요. libft에서 스플릿 보시면서 ijkfl 변수 중 l 의 미하는 게 뭐예요. 하면 잠시만요... 봐주신 분이 먼저 찾아주기도 하고.

(수) 제가 한 코드를 한글로 번역하는 걸 하고 있어요. 언제든 이건 이겁니다 할 수 있게. 평가자가 차라리 진도가 느린 분이면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는데 앞선 분이면 방어를 잘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 평가받다가 그 방어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중단해 달라고 했어요. 더 공부하고 자신만만하게 평가받고 싶다고. 대답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넷왓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면 자신감이 넘쳐서 왜 안물어보냐고 해요. 눈에보이는 것만 공부하면... 넷왓이 사람들 다 쉽게 보니까. 나 4트 했잖아.

42:00

(수) 그래서 프엪도 미뤄두고 있어. 생일에 합격선물 받고 싶기도 하고.

(코덱 및 평가에 대한 내용 / 됐네요 하고 패스주는 사람들/ 평가자 평가 왜 만점 안줬냐고 하는 사람들/ 넷왓 좋았던 평가/ cpp 좋았던 평가)

50:00 (예스리 지하 블투 이어폰 댄스/피씬 에피소드)

(수) 밤샘 옆에 여자 사우나 가서 자고 집가고 작은데 알차요

53:00 (맛있게 먹은 거 추천해달라/카레 얘기)

55:00 (멘토링 주절주절)

57:00 (최애장소)

59:00 (하고 싶은말)

(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 기본적으로 어플을 설치하면 알람이 오지 않나. 어제는 엄마가 알람을 꺼달라고 하셨다.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라 대충 어디에 있겠구나 알잖아요. 설정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톱니바ㄲ퀴보면 설정이구나 하고. 요즘 섦여이 어플에 일절 없으니까 어딜 들어가면 설정이 있는 지 알 수 없고. 엄마는 설정이 어디에잇ㄴ느지 모르더라고요. 그걸 꺼드리다가 새벽에 울컥해서. 우리엄마 나 없으면 어떡하지 (하하) 이런 생각하다가. 세대가 빠르게 발전하는 건 좋은데 느린 사람을 위한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격동의 세대니까 뭐가 어떻게 변해도 잘못 눌러보고 그러다보면 돌아나오고 아는데. 어머니들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긴으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려도 핸드폰 기종이 바뀜녀 헷갈려 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망을 만들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수) 기능은 많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기계는 비싸

(인) 엄마가 핸드폰 사용법 인강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도 있다며 신기해하시다가 어차피 핸드폰 바꾸면 못써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너무 속상하고.

(수)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게 엄마한테 신기한게. 최근에 들었던 말 중 충격적이었던게 지금 세대에 코딩 공부 안하면 나중에 키오스크 못하는 어머니 된다는 얘기를.

(인) 당장 저 졸업한 대학도 기초 교양으로 코딩이 있더라고요. 제 학번까진 없었는데. 코딩 공부를 안하면 영어 못하는 사람 보는 것처럼 코딩이 될까봐. 필수가 아닌데… 그게

(스크레치 블록코딩)

1:03:00 (러시에서 일했던 이야기)

in “서포터즈로 이노콘에 참여했어요. 기획, 자체 콘텐츠 제작 등 여러 일을 했어요. 저는 전공을 살려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일도 했어요.”

soo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서 ‘인쥬르'라고 부르고 있어요.(웃음)”

in “프랑스어 전공이라고 말하면 잘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전공을 밝히지 않으면 ‘체육했어요?’ , ‘예술했어요?’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soo “이노콘에서 신기했던 건 다들 목소리 내는 게 서슴없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처음하는 대외활동이라 낯설어서 할말도 안하곤 했거든요.”

in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친구가 거의 모든 일을 다했어요..”

Soo “한번 시작한 일은 다 해야하는 성격이긴 해요. 기획을 직접 했으면, 촬영과 편집까지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